201716905 김강민

악성코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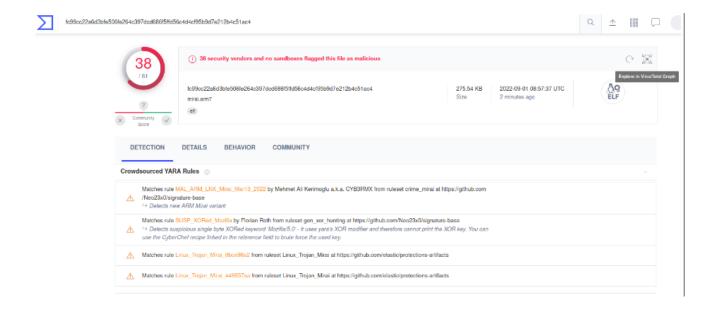
IT 정보공학과 BCG LAB 201716905 김강민

ㆍ정적 악성코드 분석

- 1. 백신 바이너리 스캐닝 이용하기
- 2. PE header 정보 조사하기
- 3. 문자열 추출하여 분석하기
- 4. 파일 난독화 여부 확인하기
- 5. Hash value 비교하기
- 6. Yara를 통해 분류하기

1. 백신 바이너리 스캐닝

- 백신 웹사이트/검색엔진을 통해 시그니처 검색
- 백신 스캐너의 공개 API를 이용하여 질의도 가능 (python)
- 백신 스캐너에 감지되지 않았다고, 안전한 것은 아님



2. PE header 정보 조사하기

(PE file : Portable Executable의 약자로 윈도우 실행 파일)

- signature : 파일 유형 식별자 => 파일 유형 파악 가능

- import : Import하고 있는 dll, functions 정보 확인 가능 =>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

- export: 다른 프로그램에서 Import하는 함수 목록 => DLL의 성격 파악 및 참고하는 프로그램 확인 가능

- section: 관련된 메모리끼리 분류한 공간 정보 => 수상한 section 확인 및 packing 여부 확인

- Time-stamp: 코드 생성 시간 등 타임 라인 확인 가능

- PE resource: 아이콘, 메뉴 같은 리소스

2-1. Signature 분석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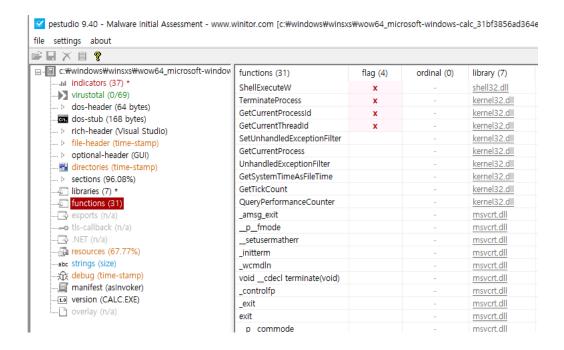
- hex editor, 파일 식별 도구, 파이썬 등을 사용하여 확인 가능
- 4D 5A로 시작하는 파일은 윈도우 실행파일(.exe)
-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List_of_file_signatures 에서 다양한 signature 확인 가능

root@ubuntu:/home/hacker/Desktop# file cron.sh
cron.sh: POSIX shell script, ASCII text executable

2-2. Import 및 functions 확인 (의존성 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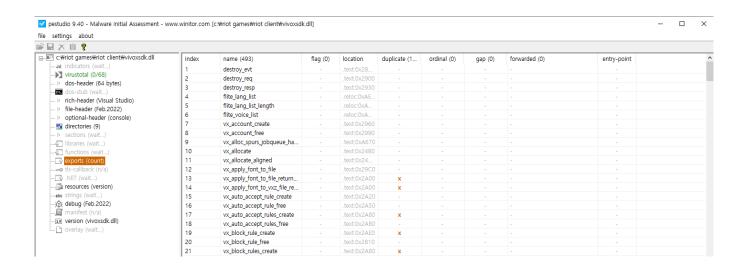
- 프로그램은 API를 이용하며, 동적 라이브러리 링크(DLL) 파일이 필요
- load한 DLL list, API list를 확인 가능
- LoadLibrary()와 같은 API를 통해 DLL을 호출하여, GetProcAddress() API를 통해 실행시킨 경우 해당 PE import table에서 확인 불가
- Import가 거의 없는 파일은 Packing한 binary일 가능성이 높음

shell32.dll	-	-	implicit	<u>1</u>	Windows Shell Common Dll
kernel32.dll	-	-	implicit	9	Windows NT BASE API Client DLL
msvcrt.dll	-	-	implicit	<u>15</u>	Windows NT CRT DLL
advapi32.dll	-	-	implicit	<u>3</u>	Advanced Windows 32 Base API
api-ms-win-core	-	-	implicit	<u>1</u>	n/a
api-ms-win-core	-	-	implicit	<u>1</u>	n/a
api-ms-win-core	-	-	implicit	1	n/a



2.3 Export 조사

-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export에 기록이 남음
- 실행 파일보다는 대부분 dll에서 존재
- export 목록을 보면 어떤 dll인지 유추 할 수도 있음



2.4 Section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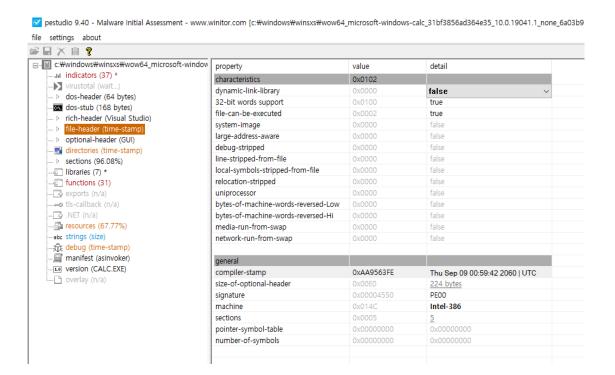
- PE 파일의 실제 내용은 section으로 분류
- 일반적이지 않은 section 명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
- UPX packing 같은 경우 UPX0, UPX1 section이 존재
- 일반적으로 virtual-size와 raw-size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, raw-size < virtual-size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 패킹 (압축 해제로 인한 size up)

섹션	설명
.test (CODE)	실행 코드가 기록된 부분
.data (DATA)	읽기/쓰기 데이터와 전역 변수
.rdata	읽기 전용 데이터 (Import, Export 정보 포함)
.idata	Import 테이블 존재 시 포함, 없을 시 rdata 섹션에 Import 정보 저장
.edata	Export 테이블 존재 시 포함, 없을 시 rdata 섹션에 Export 정보 저장
.rsrc	아이콘, 대화장, 문자열 등 리소스

필드	설명		
names	섹션명		
virtual-size	메모리에 로딩할 때의 섹션의 크기		
virtual-address	섹션의 프로세스 내 offset (상대 위치)		
raw-size	디스크에 존재할 때의 크기		
raw-data	파일에서 해당 섹션의 offset (상대 위치)		
entry-point	코드 실행 위치 (상대적 가상 주소) => 일반적으로 .text 내의 값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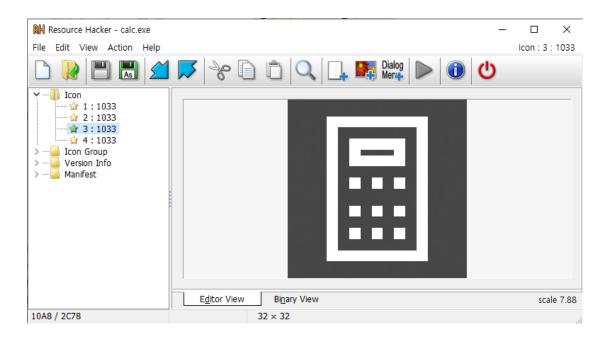
2.5. Time-stamp 조사

- PE header는 바이너리 컴파일 될 때의 정보 포함
- 코드 생성 시간 등 타임라인을 확인 가능
- 공격자가 time-stamp를 수정하여 방해할 수도 있음



2.6 PE resource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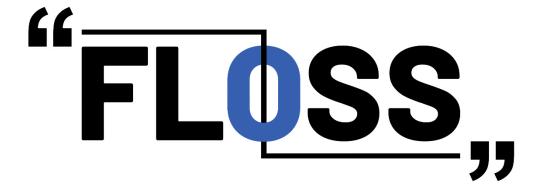
- 아이콘, 메뉴, 문자열 같은 resource를 .rsrc section에 저장
- 공격자는 때때로 추가 바이너리, decoy 문서, 설정 데이터를 rsrc 저장하므로 힌트가 될 수 있음
- 근원지, 회사명, 프로그램 제작자 세부 정보, 저작권 등 정보 노출 가능



3. 문자열 추출하기

- 리눅스에서는 string 유틸리티를 통해 확인 가능
- 난독화된 문자열은 string 같은 유틸리티로는 확인 불가
- FLOSS는 은닉한 문자열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

encoding (1)	size (bytes)	location	flag (0)	hint (2)	value (14)
ascii	9	0x00000179	-	file	ida64.exe
ascii	39	0x000001F6	-	file	C:\Program Files\DA Demo 8.0\ida64.exe
ascii	3	0x00000026	-	-	?g;
ascii	3	0x0000005E	-	-	+00
ascii	4	0x00000064	-	-	/C:₩
ascii	8	0x00000089	-	-	PROGRA~1
ascii	10	0x00000115	-	-	IDADEM~1.0
ascii	4	0x00000174	-	-	UTm
ascii	15	0x000002FF	-	-	desktop-677hog0
ascii	6	0x00000311	-	-	WLmqFM
ascii	6	0x00000331	-	-	WLmqFM
ascii	7	0x0000035B	-	-	1SPSU(L
ascii	4	0x00000399	-	-	1SPS
ascii	3	0x000003A6	-	-	H@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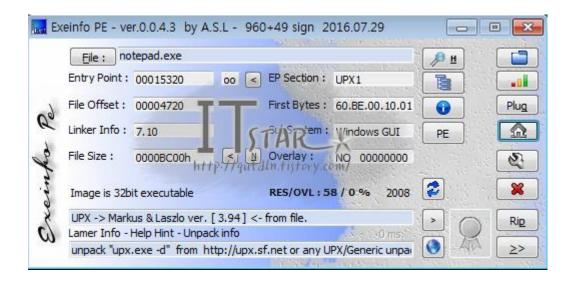
4. 파일 난독화 파악

- 난독화가 되어있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석 어려움 (분석, 리버싱 등 회피)

- packer : 실행파일의 내용을 압축해 난독화 하는 프로그램

- cryptor: 실행파일을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

-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특정 패턴 확인, 엔트로피 확인 등으로 유추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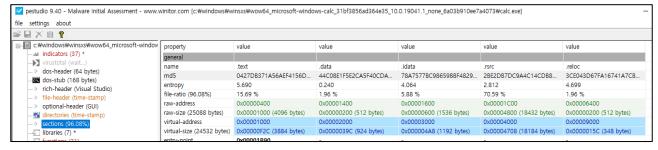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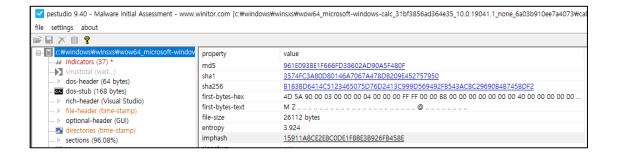


5. Hash 값 분석

- binary, fuzzy, Import, section hash 와 같은 hash 값을 기존에 공개된 악성코드의 hash 값과 비교
- fuzzy hash: 파일 전체에 대한 hash value를 계산하지 않고, 일정 크기 단위로 구분하여 각 단위 블록에 대한 hash value를 만드는 방식 (파일 무결성 검증, 파일 유사도 파악 가능)
- fuzzy hash는 ssdeep 패키지를 통해 유사도를 확인 가능







6. Signature 기반 탐지도구 사용 (YARA)

- binary에 나타나는 고유 문자열/바이너리 구분자를 기준으로 악성코드 분류
- YARA rule을 작성하여 분류 가능
- yara64.exe -r <yara_rule_name> <file>

C:#Users#kisec>C:#Users#kisec#Desktop#Files#yara64.exe -r C:#Users#kise
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IsWow64Process_10764760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CreateFileMappingA_23f9cd0a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UnmapViewOfFile_257ca71e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VirtualFree_300f2f0b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VirtualAllocEx_3f9287ae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RtICreateUserThread_40a438c8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GetSystemTime_40dc4f36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Thread32Next_42f34ed0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Thread32First_4a04d8b7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CreateFileA_4fdaf6da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GpenProcess_50b695ee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GetCurrentProcess_51e2f352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ExitProcess_56a2b5f0 C:#Users#kisec#Desktop#Files#shell.bin

ㆍ동적 악성코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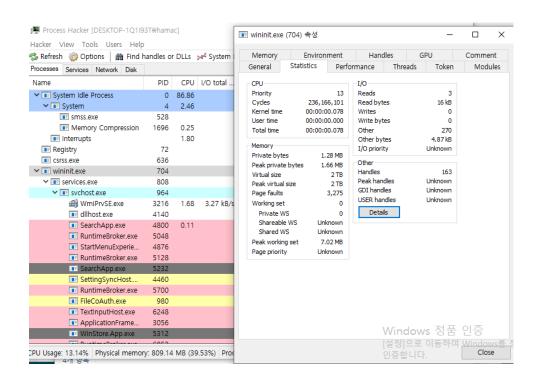
- 폐쇄망에서 악성코드를 돌려 행동을 관찰
- 1. 프로세스 모니터링: 악성코드 실행되는 동안 생성한 결과의 속성 검사
- 2. 파일 시스템 모니터링: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파일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
- 3. 레지스트리 모니터링: 접근/수정된 registry Key나 악성코드가 읽거나 작성한 registry data를 모니터링
- 4. 네트워크 모니터링: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발생한 라이브 traffic 모니터링

1. 동적 악성코드 분석 도구

- 1. Process hacker
- 2. Process monitor
- 3. Noriben
- 4. Wireshark
- 5. INetSi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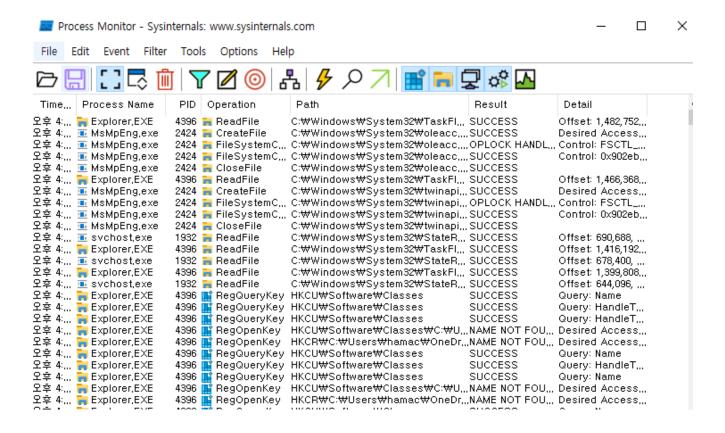
1.1 Process hacker

- 시스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도구
- 실행 중인 프로세스 조사 및 속성 확인
- 서비스, 네트워크 접속, 디스크 활동 등 파악 가능



1.2 Process monitor

-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의 정보 확인 가능
- 시스템, 레지스트리, 프로세스/스레드 활동의 실시간 시스템 상호작용 모니터링



1.3 Noriben

- 악성코드의 런타임 지표 수집, 분석, 리포트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
- 악성코드와 관련된 event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필터 존재
- Noriben을 종료하면 txt와 csv 형태로 결과 저장
- txt: 카테고리 기반 분석, csv: 타임라인 기반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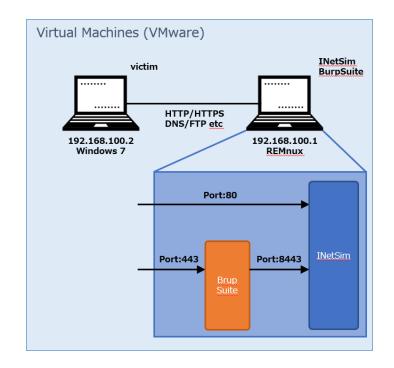
1.4 Wireshark

- 네트워크 traffic을 캡쳐 하는 packet sniffer
- windows, linux에서 모두 사용 가능

Source	Destination	Protocol Le	ength Info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[TCP Port numbers reuse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0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1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2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3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4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5 [SYN, ACK] S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0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1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2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[TCP Port numbers reuse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3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4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15415 → 80 [RST] Seq=1
10.200.8.4	10.200.8.6	TCP	54 [TCP Port numbers reuse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6 [SYN, ACK] S
10.200.8.6	10.200.8.4	TCP	60 80 → 15417 [SYN ACK] S

1.5 INetSim

- C&C server 접근을 확인하고 싶을 때, 직접 접속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 가능 (fake net을 구축해 악성코드의 C2 서버 연결 등을 확인 가능)
- 악성코드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
- Windows VM => Http/Https 요청 => Linux VM의 INetSim 응답 => 악성코드는 C&C server와 통신하는 것으로 착각



2. 동적 악성코드 분석 단계

- 1. clean shot으로 복원: 가상 머신을 초기 스냅샷 상태로 복원
- 2. 모니터링/동적 분석 도구 실행: 악성코드 샘플 실행 전에 모니터링 도구 실행
- 3. 악성코드 샘플 실행: 관리자 권한으로 악성코드 샘플 실행
- 4. 모니터링 도구 종료: 악성코드 바이너리 일정 시간 동안 실행한 후 종료
- 5. 결과 분석: 데이터/리포트 수집하고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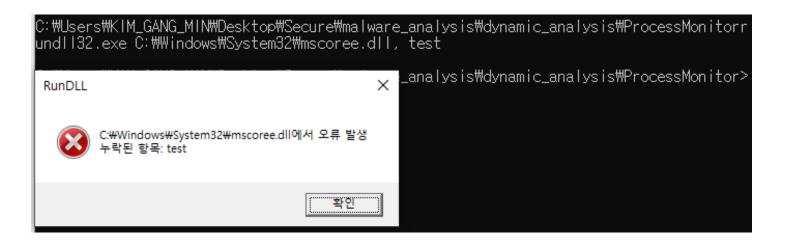
3.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(DLL) 분석

- 분석 난이도 상승, 지속성 등을 위해 악성 행위를 DLL로 만드는 경우 존재
- 실행 파일로 구성된 악성코드는 직접 실행해서 테스트 가능하지만, DLL은 실행이 불가능
- rundll32.ex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DLL을 load하여, 함수 호출 가능

rundll32.exe <DLL Path>, <Export func> <arg 1> <arg 2> <...>

3.1 export가 없는 DLL 분석

- export가 없는 경우 =>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DLL의 함수를 호출하지 않음 => DLL 내부에서 실행
- DLLMain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의 main 함수 역할을 하며, 해당 함수에 악의적 기능을 구현
- rundll32.ex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DLL을 load하여, 함수 호출 가능
- export가 없는 경우에도 export할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실행 x => 에러가 발생해도 dll 자체는 메모리에 load(DLLMain은 작동됨)



3.2 export가 있는 DLL 분석

- DLL의 entry point(DLLMain)에 함수가 구현되지 않으면, 메모리에 로드 되더라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 (이런 경우는 export되는 함수들을 직접 분석할 필요가 있음)
- export 함수가 갖는 매개변수와 그 종류를 파악 필요 (코드 분석)
- 일부 DLL은 특정 프로세스에서만 작동 (rundll32.exe 이용 불가) => RemoteDLL 같은 도구로 DLL 삽입하여 분석)

1. 다운로더 (Downloader)

- 다른 악성코드 컴포넌트를 다운로드
- UrlDownloadToFile(): 디스크에서 파일 다운로드
- ShellExecute(), WinExec(), CreateProcess() : 다운로드 받은 컴포넌트 실행

2. 드로퍼 (Dropper)

- 악성코드 컴포넌트를 추출해 디스크에 저장
- 다운로더: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드, 드로퍼: 자기 자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파일 생성
- FileResource(), LoadResource(), LockResource(), SizeOfResource()

3. 키로거 (Keylogger)

- 키 입력을 가로채서 기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
- GetAsyncKeyState(): 어떤 key가 눌러졌는지 확인
- SetWindowsHookEx(): Hook 함수를 등록해 키보드 이벤트를 모니터링

4. 이동식 미디어를 통한 악성코드 복제

- 이동식 미디어 감염 시켜 악성 프로그램 유포
- Autorun 취약점을 통해 자동적으로 감염 (Vista 이전 버전)
- GetLogicalDriveStringsA(): 유효한 드라이브 상세 정보 획득
- GetDriveType(): 드라이브가 이동식 미디어인지 확인
- CopyFileA(): 악성코드가 자신을 미디어에 복사
- setFileAttributesA(): FILE_ATTRIBUTE_HIDDEN 인자를 사용해 파일 숨김

5. 악성코드 명령 및 제어(C&C)

- 감염된 시스템과 통신 및 제어
- C2 server를 통해 명령 받기, 추가 컴포넌트 다운로드, 정보 유출 등
- 과거에는 IRC, 현재에는 HTTP/HTTPS 사용 (방화벽/네트워크 기반 탐지 우회 => 정상 트래픽으로 위장)
- 일부는 P2P, DNS 터널링과 같은 프로토콜 사용

5.1 HTTP 명령 및 제어

- InternetOpen(): 인터넷 통신 초기화 (GetComputerName()을 통해 호스트 이름 확인)
- InternetOpenUrl() : URL과 연결
- InternetReadFile(): 웹 페이지의 내용 추출 (div 태그 내에 암호화된 악성코드 추출 등)
- UrlDownloadToFile(): URL에서 실행할 파일 다운로드
- CreateProcess(): 다운 받은 파일 프로세스로 실행
- InternetConnect(), HttpOpenRequest(), HttpSendRequest(), InternetReadFile() 같은 API도 사용
- URL을 소셜 네트워크, 정상 사이트,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을 사용하면 탐지 어렵고 네트워크 기반 보안 우회 가능

5.2 유저 정의 명령 및 제어

- 유저 정의 프로토콜, 비표준 포트 => 트래픽 은닉
- WSAstart(): 윈도우 소켓 시스템 초기화
- GetHostByName(): C2 domain 이름 주소 획득 가능
- inet_ntoa() : IP주소를 ASCII 코드로 변환
- Connect() : IP주소와 연결
- CreateThread(): 새로운 thread 실행

• 악성코드 지속성

- 악성코드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기술
- 재부팅,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
- 재부팅을 통한 재부팅으로 인해 권한 상승